



가톨릭마산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2024년 6월 30일
제2624호



기도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지혜 1,13-15; 2,23-24
화 답 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 2 독 서 2코린 8,7.9.13-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 음 마르 5,21-43 또는 5,21-24.35L-43
영 성 체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김동영 아우구스티노 신부
교포사목(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분의 손과 믿음의 손

저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에서 교포사목 중입니다. 생전 처음 미국에 와서 다른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말하는 법,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새롭게 배워야 하기
에 가끔은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몇 년 동안 ‘이제는 좀 적응이 됐다’ 싶다가도,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거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해 웃픈 일이 아직 종종 있습니다.

사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근처 지역까지 관할하는 사목구 본당인데, 한국인,
미국인 배우자, 여러 인종의 지역민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특별한 어
려움을 느끼지 못했을 본당 일들이 여러 차이들로 버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리저리 알아보
고 나름의 노력을 해보지만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혼자 계속 끙끙대다 지치고, 결국 어떻게
도 할 수 없어 십자가 앞에 털썩 주저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뭔가 선명해집니다. ‘아, 내 힘만으로 하
고자 했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마음에 차는 방향만 고집했구나. 이젠 하느님의 일인
데...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당신 손에, 전능하신 당신 팔에 맡깁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분께서 손수 하고 계셨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는 저의 입이 되어 주고, 누군가는 저의 손과 발이, 누군가는 저의 마음이 되어 하느님의 일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건 부족한 저의 믿음임을 고백하며, 함께 살아
가는 공동체에 감사할, 그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다 보니, 야이로와 하혈하던 그 여인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다른 기적 이야기와는 다르
게 야이로는 그 이름이 언급될 만큼 유명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이로가 공동체의
존경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유력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은 큼니다. 그런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해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지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혈하던 그 여인의 경우, 당시 한 여인이 가산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면, 그 삶은 결코 낮은 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그 여인도 자신의 병을 치유하
기 위해 누구 못지않은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을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와 하혈
하던 그 여인은 돌고 돌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많은 군중이 각자의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손들이 예
수님께 가 닿지만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 방식으로 그분을 좌지우지하고자 했
던 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그분께 차마 손조차 댈 수 없었던 야이로와 행여 그분의 길에 방해가 될까 그분
의 옷깃을 만지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그 여인에게서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이 드러납니다. 그분
을 전능하신 하느님으로 고백하며 뻗었던 믿음의 손과 그분의 손이 맞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를 향한 마음과 믿음이 그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이를 대표하여 하느님의 손과 믿음의 손들을 이어주고 있는 교황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분께서 손수 하고
계셨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저의 입이 되어 주고,
누군가는 저의 손과 발
이, 누군가는 저의 마음
이 되어 하느님의 일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
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건 부족한 저의 믿음임
을 고백하며, 함께 살아
가는 공동체에 감사할,
그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교구 평협 전반기 연수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 주용민 리노 신부, 회장: 이한규 안드레아)는 6월 15일 교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전반기 연수회를 가졌다. 이날 연수에는 각 본당 회장단 및 교구 산하 제단체장, 평협 임원 등 14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수는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반송본당 주임)의 ‘함께 걸어가는 여정,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김종훈 신부는 특강을 통해 ‘세계교회에서부터 한국교회 그리고 마산교구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함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사는 것이 곧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전하였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34

거제도 교우촌 (3)

병인박해는 1866년 2월 시작된다. 가장 큰 원인은 서학(西學 천주교)에 대한 보수 양반세력의 적개심이었다. 당시 지배층을 이루고 있던 그들은 제사와 신분제도를 거부하는 천주교인들에게 노골적인 증오를 드러냈다.

다음은 정치적 이유다. 고종이 즉위하자 러시아는 두 번에 걸쳐 통상을 요구해온다. 다급해진 대원군은 교회 측과 교섭을 가지려 했다. 프랑스 세력을 이용해 러시아 남침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이 계획을 추진한 이는 승지承旨며 교우였던 남종삼南鍾三이다.

그는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와 대원군과의 면담을 주선하지만 실패한다. 지방에 있던 주교를 연락해 모셔 오는 데 한 달이 걸린 것이다. 그 사이 정세는 바뀌고 있었다. 국경의 러시아 세력이 잠잠해진 것이다. 주교와의 조속한 회동을 기다리던 대원군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다.

더구나 정적政敵들이 그의 천주교 접근을 눈치채고 공세를 취하자 돌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탄압 쪽으로 돌아선 것이 병인박해다. 박해는 그의 실각 때까지 7년간 계속되었다. 조선 교회는 처참히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 살아남은 교우들은 집과 재산을 잃은 채 숨어 지내야 했다.

병인박해는 경남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당시 이곳엔 8곳의 교우촌 지역이 있었다. 문산, 사천, 고성, 통영, 거제, 남해, 마산龜山, 의령이다. 1861년 리델 신부가 입국할 때 지냈던 교우촌 지도가 입증한다. 박해가 계속되자 이들 지역의 교우들도 어쩔 수 없이 피신하게 된다. 교우촌 해체가 시작된 것이다.

거제도 교우촌도 이렇게 해서 사라졌다. 박해 중이라 그들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대부분 통영을 거쳐 내륙 쪽으로 들어갔고 먼바다 섬으로 피신한 이도 있었다. 남해南海 교우촌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사라진 뒤로 영영 회복되지 못했다. 박해가 끝난 뒤에도 남해에는 교우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1873년 대원군은 실각한다. 그가 물러가자 박해도 끝나게 된다. 숨어 있던 피난 교우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전의 교우촌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여건이 나은 곳을 찾아 떠돌기 시작한 것이다. 첩첩산중에서 화전과 웅기로 생계를 이어가던 교우들까지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 이 무렵이었다.

거제도에 새로운 교우촌을 다시 일으키는 순교자 윤봉문尹鳳文의 가족도 이 시기 남쪽으로 이동한다. 그들은 경북 영일군에서 양산, 대청(지금의 기장)을 거쳐 점점 남쪽으로 내려왔고 마지막 도착지가 거제도였던 것이다. 옥포본당 초대 신부였던 김후상(金厚相 1901~1983) 신부는 윤봉문 가족과 옥포 지역 유지였던 진진부陳進富와의 만남을 1879년 가을이라고 적고 있다. (김후상, 거제도 천주교 연혁 11면)

아무튼 당시 옥포의 동수(洞首 현재의 洞長)였던 진진부의 후원으로 윤봉문 가족은 거제도에 정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옥포 지역에 새로운 교우촌이 등장했다. 병인박해로 사라진 교우촌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첫 회장은 순교자의 형 윤경문(베드로)이 맡았다. 훗날 윤봉문은 진진부의 사위가 된다. 순교복자 윤봉문이 살았던 집터엔 이후 국산성당이 세워지고 1923년 드망즈(Demange 安世華) 주교가 헌당식을 거행했다. 2015년 국산성당은 새롭게 단장된 경당으로 바뀌었고, 국산성당 정문에 천주당天主堂이라 새겨 넣었던 건물은 보존되어 있다.

베드로 성금

베드로 성금의 현황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교황 재위 첫해에, 이 베드로 성금의 올바른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 성금’은 모든 신자가 보편 교회를 위한 로마 주교의 자선 활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러한 몸짓은 실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교황과 이루는 친교의 징표이고 형제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의 징표로써 강력한 상징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봉사는 특별한 교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베네딕토 16세, ‘St Peter’s Circle’ 회원들에게 한 연설, 2006.2.25.)

이러한 몸짓의 교회적 가치는, 자선 활동이 교회의 본성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 더욱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에 대하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2005년 12월 25일에 반포하신 당신의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조직화된 활동인 사랑의 실천에서 결코 면제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 각자의 사랑 실천이 불필요한 상황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정의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며, 또 언제나 사랑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9항)

이러한 지원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활력을 줍니다.

“교회의 사랑 실천이 그 모든 광채를 간직하며, 단순히 일반적인 사회 복지를 위한 기관 가운데 하나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원칙인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랑의 활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 알맞은 행동을 합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

베드로 성금은 신자들이 성 베드로 직무의 후계자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라는 사실에 역대 교황님들께서는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직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 특히 전교 지역 국가들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요구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민족들과 개인들과 가정들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지원을 사도좌에게서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드로 성금은 복음화 사업에 참되고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편 교회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눈다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에 그러합니다.”(요한 바오로 2세, ‘St Peter’s Circle’ 회원들에게 한 연설, 2003.2.28.)

신자들이 교황 성하에게 바치는 헌금은 교회 활동과 인도주의적 사업과 사회 발전 사업과 성좌 활동 지원에 사용됩니다. 교회 전체의 목자이신 교황님께서서는 가난한 교구와 수도회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신자들의 물질적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또한 교황님께서서는 가난한 이, 어린이, 노인, 소외된 이, 전쟁과 자연재해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밖에 어려움에 놓인 주교와 교구에 대한 실질적 원조, 가톨릭 교육, 이민과 난민 돕기에도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베드로 성금에 영감을 준 일반적 기준은 초기 교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사도좌 지원의 주요 원천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와 선의의 사람들이 기꺼이 내어 준 봉헌이어야 합니다. 이는 복음에 기록된 전통(루카 10,7 참조)과 사도들의 가르침(1코린 9,11-14 참조)에 부합되는 것입니다.”(요한 바오로 2세, 국무원 총리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 1982.11.20.)

교황님께서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교황님을 도와시다! 여러분의 기부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소중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오랜 관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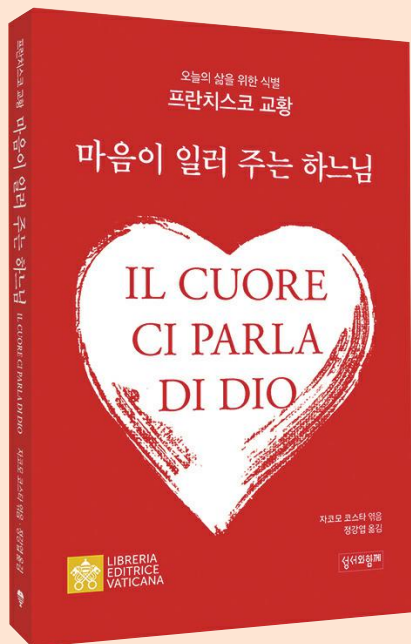
복음 선포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관행은 그리스도교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사도 4,34; 11,29 참조).

8세기 말, 앵글로색슨들은 로마의 주교와 너무나 친밀한 연대를 느꼈기에 교황 성하께 매년 정기적으로 헌금을 바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성금(Denarius Sancti Petri)의 기원이 되었고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관행은 같은 형태의 다른 관행처럼 오랜 세월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비오 9세 교황님께서 1871년 8월 5일에 반포하신 회칙 Saepe Venerabilis를 통하여 이를 승인하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 성금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나 이 대축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은이: 교황 프란치스코
- 엮은이: 자코모 코스타
- 옮긴이: 정강엽
- 출판사: 성서와함께

오늘의 삶을 위한 식별, 프란치스코 교황 마음이 일러 주는 하느님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이는 누구입니까?

삶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악마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마음이 일러 주는 하느님』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후 첫 10년 동안 식별에 대해 가르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는 식별은 마음의 태도이자 지혜이고, 식별을 배우려면 공부를 해야 하며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1부는 2022년 8월 31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수요일 일반 알현에서 한 14개의 교리 교육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회 회원으로서 몸소 살아온 이냐시오 영성의 전통에 따른 식별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제2부는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 기간에 남긴 문서와 연설 중에서 식별을 다룬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I장 '성령께 귀 기울이기'는 식별의 실천이 갖는 심오한 영적 본질을 강조합니다. II장 '공동체적 역동성'은 식별이 영적 실천이기에 항상 교회의 활동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III장 '선교로 부르심'은 진정으로 영적이고 교회적인 식별을 보여 주는 선교를 위한 지향에 초점을 맞춥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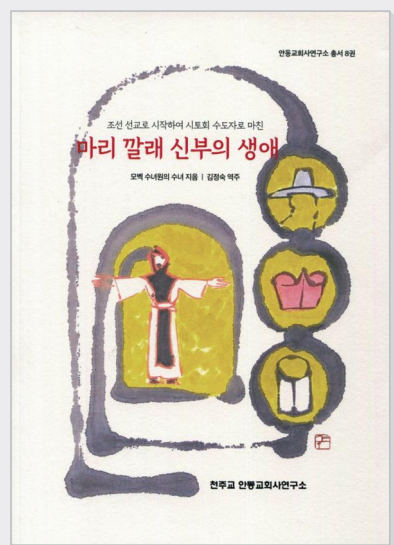
조선 선교로 시작하여 시토회 수도자로 마친 마리 깔래 신부의 생애

안동교회사연구소(소장: 신대원 요셉 신부)가 여덟 번째 총서 「조선 선교로 시작하여 시토회 수도자로 마친 마리 깔래 신부의 생애」를 펴냈습니다.

이번 총서는 깔래 신부(Nicolas adolphe Calais, 1833~1884)의 전기로, 깔래 신부가 생애 마지막을 보낸 모벡의 수녀원의 한 수녀가 지은 것을 안동교회사연구소 객원연구원 김정숙 교수(소화 테레사·영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번역하였습니다.

깔래 신부는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로 1861~1866년 경상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사목활동을 펼쳤습니다. 북자 박상근 마티아와의 우정과 안타까운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깔래 신부는 병인박해 당시 중국으로 피신한 뒤 여러 차례 조선 재입국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건강 때문에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말년에는 봉쇄수도원으로 들어가 조선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지내다 1884년 선종하였습니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이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오랫동안 교우촌의 생활을 오롯이 품고 간직해 온 신앙의 열정들이 다시금 신앙의 기쁜 열기로 일어날 것을 믿는다”고 전하였습니다.



- 지은이: 모벡 수녀원의 수녀
- 역주: 김정숙
- 펴낸곳: 안동교회사연구소
- 출판사: 도서출판 동명
- 문의: 천주교안동교구청 사무처
054·858·3111~3

견진성사

일시: 7월 7일(주일) 10:30
장소: 문산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전국 출판검열관 회의

일시: 7월 1일(월)/ 장소: CBCK

신앙대학

일시: 7월 6일(토)~7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 성경 교육봉사자 1학기 종강미사

일시: 7월 6일(토) 15:0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 교육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통영, 거제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7월 13일(토)까지 접수(면담 후 봉사자 교육)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7월 봉사자 기도모임

일시: 7월 1일(월) 13:00~15:50
장소: 사파동성당
내용: 성체조배, 특강, 미사, 회의
특강-이창준(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주제-성체조배의 기초
대상: 성체조배회 봉사자 및 전신자
문의: 성체조배회 담당자 010·5116·2288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첫째 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2621·6034(신연희 에스텔)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첫째 주(수) 19:30 회원동성당
창원: 첫째 주(화) 20:10 사파동성당
진해: 첫째 주(월) 10:00 경화동성당
비대면: 첫째 주(월) 20:00 화상연결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7월 수미사 안내

일시: 7월 7일(주일) 10:30/ 장소: 상남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7월 수미사는 후원회원 모집 미사로 진행되며, 이날 15:00 남성동성당 미사는 없습니다.

224차 ME주말 안내

일시: 7월 19일(금)~21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접수(문자발송-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황인성(골디아노) 010·4570·3392
김은수(소피아) 010·9234·8171

창원산타체칠리아 여성 합창 단원 모집

노래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모두를 초대합니다.
연습일정: 매주 화요일 13:00~15:00
장소: 전용 연습실(용지로 103번지)
대상: 20~60대 여성 신자 또는 예비자
경력과 실력보다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가득한 분(입단 오디션 없음)
활동: 정기연주회, 합창 연습, 음악봉사 등
문의: 총무 010·3177·7976/ jeanne0524@naver.com

장애·비장애 통합 합창단 '파첼 합창단' 단원 모집

일시: 매주 목요일 10:00~12:00
장소: 진해장애인복지관 2층 대강의실
모집: 수시(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분야: 합창, 피아노 반주(반주자는 자원봉사 실적 등록 가능)
신청 및 문의: 055·540·0440(진해장애인복지관)

기 타

바오로딸과 함께하는 피정

일시 및 장소: 여주-7월 13일(토)~14일(주일)
대상: 2030 미혼 여성
8월 3일(토)~4일(주일)
대상: 여중·고생
문의: 010·2507·1610

2024 모여라 가톨릭 영상 공모전 신청 안내

기간: 8월 1일(목)~9월 1일(주일)까지
주제: 신앙캠프 뭐하니?(주일학교 여름 신앙학교와 관련된 자유 영상)
대상: 본당, 단체, 수도회 및 세례받은 신자 누구나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 <https://mocatolic.or.kr>에 영상등록
문의: 천주교 수원교구 모여라가톨릭팀 031·8019·5403

진주시구 병원미사 봉헌

일시: 6월 30일(주일) 14:00
(매 주일 14:00 미사 봉헌)
장소: 진주 경상대병원 천주교 원목실

교구 성령기도회 장소 변경 안내

교구 성령기도회 진행 장소가 7월 1일(월)부터 중앙동성당에서 남성동성당으로 변경됩니다.
일시: 7월 1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19:00~22:00)
장소: 남성동성당 성전
주최: 마산여시장 서부공영주차장
문의: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010·5247·9900

가음동성당 재건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가음동성당 재건축 진행과정과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3D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7월 1일(월) 19:00	남성동성당	토빛기로 바라본 하느님 섭리	마진우 요셉 신부(대구대교구)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제주, 전국 167곳, 일본,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제주, 전국 167곳-36만 원 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아키타,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각 3박 4일-120만 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지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수목장·평장묘 터 알선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	---	---	---

호계본당 33주년 본당의 날 기념 '사랑의 호계음악회' 개최



호계본당(주임: 김현우 가브리엘 신부)은 6월 15일 33주년 본당의 날을 기념하여 교구 합창단과 함께 하는 '사랑의 호계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음악회는 교구 합창단의 합창, 호계본당 성가대의 합창 그리고 본당 주일학교 밴드부의 공연, 가야금, 피아노 연주 등으로 진행되었다. 음악회에 함께한 본당 신자들은 합창과 악기 연주를 통하여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었다.

남성동본당 '상아보탑 Pr.' 2,000차 기념 주회



남성동본당(주임: 임해원 안토니오 신부) '그리스도의 모친 Cu.' 직속 '상아보탑 Pr.'(단장: 김숙이 에딧다)은 6월 11일 2,000차 기념 주회를 실시하였다. 상아보탑 Pr.은 1984년 12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8명의 여성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본당 사제를 비롯하여 역대 단장들과 본당 레지오 단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와 기쁨을 나누었다.

함양본당 '즐거움의 샘 Pr.' 500차 기념 짜장면 나눔



함양본당(주임: 박영진 베드로 신부) '함양 원죄없으신 잉태 Cu.' 직속 '즐거움의 샘 Pr.'(단장: 박구열 요셉) 단원들은 6월 20일 500차 기념 주회를 맞이하여 6월 16일 본당 전신자를 대상으로 짜장면 나눔을 하였다. 즐거움의 샘 Pr. 단원들의 짜장면 나눔으로 본당 주임 사제를 비롯하여 신자 모두가 함께하며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즐거움의 샘 Pr.'은 2013년 7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9명의 혼성 단원으로 구성되어 레지오 마리에 정신으로 기도하며 생활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문옥영 테오도라 시인/ 가톨릭문인회

아들 내외는 이바지 음식을 풀어놓고 답바지 음식을 실은 차에 시동을 건다. 아들 내외가 떠난 자리에 복잡한 감정이 싹튼다. 밥을 푸고 털어내고 다 끓여 놓은 국을 다시 끓인다. 혼자 속을 끓인다.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두 번 세 번 세수를 한다. 아들의 신혼여행지 대부분은 성당, 성지였다. 카톡으로 전송되는 세비아, 파티마, 가우다... 올리브나무 즐비한 풍경을 보면서 “우리 며느리 천주교신자 되겠네” 농담 섞인 댓글을 달기도 했다. 목주가 주렁주렁 매달린 가판대 사진 아래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라 쓴 문자를 보며 절로 웃음이 나왔다. 엄마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주는 것 같아서 기뻐다. 은근히 목주 선물을 기대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풀어 놓 선물보따리. 가족들의 취향에 맞춰 필요한 선물을 사느라 많은 비용과 정성을 들인 듯했다. 내 몫의 선물로 화장품과 가방을 내놓았다. 화장품은 물론 부드럽고 가벼운 가방은 크기도 색감도 맘에 쏙 들었다. 기대했던 목주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기대가 큰 만큼 서운함도 컸다. 왈각 눈물이 끼어들었다. 목주 대신 눈물을 선물로 받은 셈이다. 아들은 집에 목주가 많고, 그곳에서 목주가 지나치게 상술에 이용되는 것 같아서 안 샀다고 변명했다. 나는 “공장에서 떼다 파는 목주라도 신부님 축성 받으면 되는데...” 말끝을 흐리며 서운한 속내를 드러냈다. 사실 목주가 없어서 목주를 바란 건 아니다. 아들 말대로 목주는 얼마든지 있다.

혼기가 찬 아들이 결혼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다. 바라던 결혼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고 축하의 말과 기도 약속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좋은 일이라고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짝을 만나 혼인했으니 자식 낳고 기르며 성가정 모범으로 살 일이 남았다. 이 중요하고 소박한 청원을 담아 각각의 신비를 묵상하며 기도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서운함으로 착잡하고 무겁던 마음은 어느새 새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서운함은 시원함이 되고, 환한 기쁨이 되었다. 보잘것없는 목주 한 알 한 알의 기도가 일상의 삶에 미치는 이 신비한 영향력을 아들은 알거나 할까?

성가정 안에서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 예수 때문에 서운한 눈물 꽤나 흘렸을 게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가 없었다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성인이 될 수 없었을 테다. 이 땅에 눈물 어린 기도 없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어머니가 있기는 한 걸까. 부모의 기대를 알면서도 모른 척 내 할 일만 했던 잘못을 이제 와서 눈물로 후회한다. 성모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생각을 고집했을 때, 성모님은 얼마나 서운했을까. 성숙하지 못한 나, 부끄러운 나를 성모님께 맡겨드린다. ‘나를 향한 사랑의 꽃다발인 목주가 네 손안에 항상 있으니. 나는 서운치 않다. 나는 괜찮다.’고 속삭이는 듯. 평온함이 벌써 내게 와 있다.

